제8장 가정을 바르게 한 효과

도 입

거친 질문이지만 사회가 혼란한 까닭이 무엇일까? 예컨대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공직자의 부정부패, 그리고 각종 범죄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누구나 한번쯤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다. 비록 현실정치나 공직에 몸담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우국지사(憂國之士)라 부른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나 그 이후의 전국시대 당시의 모습도 그 혼란함이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공자와 그 후학인 유가(儒家)들은 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천자나 제후 등의 지도자부터 바르게 서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지도자의 수신을 통하여 가정을 바르게 하면 국가는 저절로 다스려지며 천하가 평화롭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바로 율곡 선생이 이 책에서 말하는 논리 가운데 하나도 임금이 수양을 통해 바로 서고, 그런 다음 가정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말한 것처럼 임금이 가정을 바르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소개하고 있다.

본 문

[율곡의 풀이]

임금이 가정을 바르게 한 효과는 임금이 잠자는 침소에서부터 쌓이고 쌓이더라도 나라 전체에 가득 차 넘칠 것이니, 명령이나 호령을 내리는 것을 기다릴 틈도 없이 저절로 풍속(風俗)이 바뀌고 백성들이 교화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대학]

한 집안이 어질다면 온 나라가 어질게 되고, 한 집안이 겸양하다면 온 나라가 겸양해 진다.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이것은 교화가 온 나라에 이루어지는 효과에 관해서 말한 것이다."

[대학]

『시경』에서 "법도에 어긋남이 없으니, 사방의 나라를 바로 잡으리라."고 하였으니, 부자(父子)와 형제(兄弟)가 본을 받아야만 백성들이 본받게 된다.

〈주석〉 물었다. "부자와 형제가 본을 받아야만 백성들이 본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요임금과 순임금은 그 아들을 감화시키지 못하였으며, 주공(周公)은 그 형과 아우를 화목하게 할 수가 없었으니,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주자가 말하였다. "요임금과 순임금과 주공은 특수한 경우에 처하였던 것이다. 천하를 아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어진 이에게 전해 준 것은 바로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잘 처리한 것이다. 만일 주공이 관숙(管叔 : 문왕의 아들이자 주공의 형제. 반란을 일으켰다)을 죽이지 아니하였다면 주나라가 어지럽게 되지 아니하였겠는가? 이것은 부득이 하여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편적인 경우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다."

[시경]

야들야들한 복사꽃이 활짝 피었네. 이 딸이 시집가니 그 집안 화목하리.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문왕(文王)의 덕화(德化)가 집안으로부터 나라에 미쳐서 남녀가 바르게 되고 혼인을 제 때에 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인이 그 여자의 현숙한 것을 감탄하여 그가 반드시 그 집안을 화목하게 할 것을 알겠다고 한 것이다."

[율곡의 풀이]

오직 그 사람의 뜻이 정성스럽지 아니하거나 마음을 바르게 가다듬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정을 바르게 하는 데까지 미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이며, 집 안이 바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데까지 미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진실로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가다듬을 수가 있다면, 집안과 나라를 다스리기는 쉬운 것이다.

해설

지금까지 제2부는 가정을 바르게 하는 문제를 다루었지만, 거기에는 자기 몸을 닦는 수신이 전제되어 있다. 정리하면 주체인 내가 바로 서야 대상인 사물이 바르게 된다는 논리이다. 물론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이 다 '내 탓이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통치자를 염두에 두고 말한다.

사실 유가(儒家)의 이론은 춘추전국시대에 제자백가의 이론 가운데 하나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다른 이론과 마찬가지로 제후들이나 대부 등에게 채택되어 쓰이고자 탄생하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자에게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도 기실 그들이 공자로부터 크고 작은 나라 또는 작은 땅인 식읍(食邑)을 다스리는 방법이나 원리를 배워서 벼슬을 얻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가의 사상은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부터 작은 땅을 다스리는 자에 이르기까지 그 원리가 지도자 자신부터 수양하여 자기 가정을 바르게 함으로써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였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공자나 묵자와 같은 당시 학파의 수장들은 오늘날로 보면 이름난 대학의 총장이나 과외선생이라고 해야 할까?

그러니 성학(聖學)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제왕학(帝王學)인 셈이다. 다만 그런 사상에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점이 있다. 특히 공자나 맹자의 경우는 강제력을 지닌 법이나 얄팍한 권모술수가 아닌 인간의 도덕성에 학문적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보편성을 띤다고 하겠다. 이것은 어느 종교나 사상에 다 들어 있는 현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학이 지도자를 위한 성격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보통사람들에게 이런 지도자를 위한 성학이 필요는 없는 학문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오늘날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모임이나 조직에서 지도자가 안 될 수가 없다. 게다가 지도자가 되면 가족의 실수 때문에 낭패 보는 지도자가 흔히 있다. 가족의 실수가 본인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니더라도 가정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한 것은 해당 본인의 무능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은 이 유학의 전통 때문이 아닐까? 물론 유학의 전통이 없는 서양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처럼 엄격하지는 않은 것 같다. 가족의 독립성을 우리보다 더 존중하는 풍토가 있기 때문이리라.

이런 논리에서 보자면 조직이 잘못되면 지도자는 스스로 '내 탓이다'고 고백해야 한다. 그 혼란을 시민이나 구성원의 탓으로 돌리면 무능하다. 민주사회에서 정치가는 국민이 추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잘 해 보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유권자의 다수가 지지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실패

나 일시적 혼란을 국민이나 시민을 탓으로 돌린다면 무능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들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지 말아야 했었다. 이게 바로 유학의 입장에서 볼 때 올바른 지도자상이다. 바로 가장 근원적으로 자신의 수신(修身)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수신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사심(私心) 곧 사적인 욕심과 그 욕심으로 인해 가려진 사태의 인식부족이다.

생각해 볼 문제

1. 본문과 해설에서 '가정을 바르게 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 진다'는 논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했는데, 아무래도 그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되거나 수긍을 못할 수도 있겠다. 전통적으로 군주가 지배하는 군주제 정치 체제에서는 군주-부모, 백성-자녀의 관계로서 사회를 인식하고 또 지배체계도 그런 방향에서 구성되었지만,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아래로부터 국민이나 시민의 대표자가 그들의 권리를 대신해서 지배하는 체제를 갖고 있다. 바로 여기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문제가 국민이나 시민의 대표로서 하는 일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희박해 보인다. 가정이 없는 사람도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이혼이나 재혼의 경험이 있는 사람도 대표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가정에 문제 많은 사람도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정을 바르게 하면 나라가 반드시 잘 다스려질 것이라는 논리는 그 효용성이 줄어들 것이다. 가정의 일과 나라 지도자의 일은 무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을 다스리는 문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2. 율곡 선생은 경전을 인용하여 국왕이 침실에서조차도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여직원과 성 추문이 있어도 추문으로서만 끝내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개인의 사생활과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과연 이처럼 별개의 문제처럼 관대하게 보아도 괜찮을까? 아니면 더욱 엄격하게 적용시켜야 할까?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3. 오늘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가 잘못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지도자의 사심(私心)이 지나치게 국정에 반영된 경우가 많다. 크게는 그것이 지나쳐 장기집권의 독재자로 군림하다가 비극적인 결말로 끝낸 사람들이 꽤 있고, 작게는 나라 전체의 경제가 휘청거리게 만들어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자들도 있다. 그 사심이라는 것을 따지고 보면 사욕(私慾)인데, 최고 지도자까지 해 봤으면 사욕이 없을 만도 한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이런 뜻에서 보면 유학에서 강조하는 지도자의 자기 수양이 여전히 필요할 것 같다. 사사로운 욕심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앞에서 율곡 선생이 말한 것 가운데서 찾아 말해 보세요.

4. 올바른 가정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 올바른 가정은 대개 부모의 지적인 수준과 교양 그리고 경제적 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가 올바른 가정의 역할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는가?

한문 익히기

인 신 부 정 처 자 이 욕 격 군 자 시 유 불 운 이 구 확 야
人臣이 不正妻子하고 而欲格君者는 是猶不耘而求穫也니라(『성학집요』).

▶한자 풀이와 해설

人 : 남/臣 : 신하/不 : 아니하다/正 : 바로잡다, 바르다/妻 : 아내/子 : 자식/而 : 말을 잇는 접속사/欲 : ~하고자 하다/格 : 바로잡다/君 : 임금/者 : 것, 사람/是 : 이것, 이/猶 : ~와 같다/耘 : 김매다/求 : 구하다, 찾다/穫 : 거두다, 얻다

*欲~者 : ~하고자 하는 것

*~者는 (是)猶~ : ~하는 것은 猶 이하와 같다의 뜻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인신(人臣) : 남의 신하 곧 신하를 일컫는 말

*격군(格君) : 임금을 바르게 하다. 비슷한 말에는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격군심(格君心)이 있다.

해석

신하가 자기의 아내와 자식을 바르게 하지 않고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은 김을 매지 않고 수확물을 찾는 것과 같다.

一家仁이면 一國이 興仁하고 一家讓이면 一國이 興讓하고
一人이 貪戾하면 一國이 作亂하느니라(『대학』).

한자 풀이와 해설

一 : 하나/家 : 집안/仁 : 어질다/國 : 나라/興 : 일으키다, 일어나다/讓 : 사양하다/貪 : 탐하다/戾 : 어그러지다, 사납다/作 : 일으키다/亂 : 어지럽다, 난리

*여기서 말하는 一家는 왕의 집안을 말함

*여기서 말하는 一人도 왕을 말함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인(仁) : 공자의 중심사상으로 여러 의미로 쓰임. 우리말로 보통 '어질다'로 옮김

*흥인(興仁) : 어질게 하다. 참고로 흥인지문(興仁之門)은 동대문을 말함

*탐려(貪戾) : 욕심이 많아 정도(正道)에서 벗어남 또는 욕심이 많고 사나움

*작란(作亂) : 난리를 일으킴

해석

한 집안이 어질다면 온 나라가 어질게 되고, 한 집안이 겸양하다면 온 나라가 겸양해 지며, 한 사람이 욕심이 많아 정도에서 벗어나면 한 나라가 난리를 일으킨다.